

성북동 갤러리카페 카페호비에서 5월전시에 초대합니다.

[카페호비 기획전] 윤상범개인전

Bottling Time /시간을 담다

기간 25.05.02-05.30

오픈시간 화-토 9:00-18:00

전시장 카페호비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16길 16-30)

Bottling Time / 보틀링 타임 / 시간을 담다

윤상범 작가의 이번 전시는 탄산음료를 밀봉된 병에 담아 보틀링하여 보존하듯이, 대상의 형태와 색감, 대상을 둘러싼 공기와 시간까지 모두 압축하여 꼭꼭 담아 밀봉하여 관객에게 전달하는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카메라는 작가의 충실한 눈이자 안료이자 도구로서 화면 안에 작가의 예술적 감각을 짙게 담고 있습니다. 작품의 여백조차도 시간과 공기의 담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작가는 오랜 기간의 촬영작업경험을 통해 직접 고안한 장치와 기법 등을 통해 작가 자신만의 회화적 표현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윤상범 작가는 자신의 예술적 시간을 프레임 안에 짙게 담아 관객에게 선보입니다.

이제, 작가가 담아 보낸 **예술의 보틀**을 열어 볼 차례입니다. Let's Open the Bottle! Cheers!

사진을 전공하고 2005년도부터 정형화되지 않은 독창적인 스타일과 인물 사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선보이며 패션 매거진과 상업사진 작업을 활발히 이어가던 윤상범 작가는 홀연히 자신이 결성하고 활동하던 팀을 떠나, 자신만의 예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카메라의 대상은 화려한 셀럽에서 생활과 자연 속 존재하는 동물, 식물, 사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윤상범작가는 대상이 가진 내면의 아름다움을 아주 천천히 들여다보고 그 만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000초 찰나를 포착하는 사진에서 160시간이상을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있는 사진까지, 작가는 대상이 가진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담고 있습니다.



도1. The flowers are falling, 500x600, 2012. 장시간 노출을 통해 담아낸 꽃들의 시간.

도2. Green tea, 355x500, 2014 뜨거운 물을 만나 자신이 머금은 향미를 한껏 퍼뜨리려고 춤을 추는 차잎의 순간의 움직임을 담고 있다.

짧은 한철을 살아가는 생명의 찬란한 순간도, 마지막 운명의 씨앗을 퍼뜨리는 순간도, 프리즘을 통과하여 본색을 드러난 무지개도, 2만 시간의 빛을 뿜어내고 사그라지는 필라멘트도 모두 작가에게는 인간과 같은 모탈(Mortal)의 운명을 지닌 지구의 동료로서 그의 작품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3. *A light bulb*, 1000x800, 2013 도4. *Rainbow in hand*, 345x271, 2023 도5. *Ants*, 431x300, 2007

회화가 사진의 경계에 가 있는 하이퍼리얼리즘 회화가 있다면, 윤상범의 사진 작품은 도리어 회화적입니다. 작가는 마치 빛의 화가 인상파 화가들처럼, 대상이 존재하는 시간과 빛을 작가의 눈 이자 붓 이자 안료와 같은 카메라를 통해 화면에 그려내고 있습니다. 대상의 형태 뿐만 아니라 색감이 가진 아름다움을 회화적으로 담아내어 순수한 미적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6. *Bubbles*, 431x300, 2007 도7. *Dry ice in a cup*, 431x300, 2014 도8. *Chungkyungchae*, 300x225, 2007

대상과 시간을 함께 담아 회화적 미감을 보여주는 윤상범 작가의 사진 작품들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서는 유한한 존재에 대한 애정과 애잔함마저 담겨있는 작가의 시선과 이를 예술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기법 적인 완숙함도 함께 구현한 윤상범 작가의 사진작품의 세계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작가인 윤상범 그리고, 뮤지션인 Kameiro

윤상범작가는 2014년부터 프로듀서이자 뮤지션 Kameiro로 음반작업을 하며 지속적으로 음반을 발매 중에 있습니다. 이번 윤상범 작가의 전시에서 시각미술인 사진작업을 비롯하여 프로듀싱한 음악과 함께 작가의 예술세계관을 공감각적으로 감상해보시길 바랍니다!

QR코드 : Youtube 음악 / Kameiro x Pebecco / NoiseSymphony Presents



윤상범

2005.02 중앙대 사진학과 졸업

전시

- 2025 Bottling Time, 개인전, Cafehobby, 서울
- 2024 Seoul Art Show 2024 코엑스, 서울
- 2024 Kameiro + Pebecco, 기획초대전, 갤러리아래현, 경주
- 2024 부산아트페어 BEXCO 2024, 부산
- 2023 Seoul Art Show 2023 코엑스, 서울
- 2023 속초아트페어(bac)초대전, 속초
- 2023 이상과 흔적, 갤러리보나르, 경기
- 2010 문래예술공장 개관전 참여, 서울
- 2008 Are you experienced?, 개인전 Gallery2, 서울
- 젊은 작가, 단체전 The columns gallery, 서울
- 2006 레인보우샤베트, Scape gallery, 서울
- Ssamzie artbook Vol.1 기획 및 제작 출판

음반

Kameiro

- 2014 - 정규1집 "Kameiro Stomp" 발표 후 EP, 싱글과 정규음반 30여편 발매 중
- 2025.03 싱글 "잠시서서" 발매

카페호비 기획전

CafeHobby Project Exhibitions

신진 중견작가들의 작품을 재해석하고

관람객들에게 천천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작품소장의 기쁨을 캠페인 합니다.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16길 16-30

T. 82-2-4647709

artpiece@naver.com

📷 @cafe.hobby_

